

# 도시근로자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에 관한 연구

##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and Their Determinants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강사 양정선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Lecturer : JungSun Ya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sisting of a sample of 1,801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Tobit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The results showed that 76% of households held savings accounts, 77% savings insurance, and 12% non-institutional assets in private financial clubs. Gender, age, education, job, spouse employment, family type, location, home ownership,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incom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investment in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Family income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주제어(Key Words):** 저축(saving), 보험(insurance), 계(private financial clubs)

## I. 서론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개인신용불량자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계재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가계는 출산과 양육, 주택소유, 자녀의 결혼과 은퇴준비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루어야하는 목표가 있으며 이들 목표는 일정 소비지출을 전제로 하게된다. 그러나 가계는 언제나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추구하게 되며, 수많은 가계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전 생애에 걸쳐 극복하며, 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가계는 저축과 보험 및 각종 투자를 하게 된다. 가계가 생애를 통해 저축하는 자산은 그 특성상 소비를 위한 것, 보호를 위한 것, 생산을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축적은 가계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계의 경상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현금, 내구재, 주택 등의 소비를 위한 것이 우선하게 된다. 그 후에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무적 대처가 필요한데, 이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가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소득손실 등과 같은 경우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축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와 보호를 위한 자산이 확보된 후에는 생산을 위한 자산축적, 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계는 위험성과 수익성, 유동성 및 기타 자산 획득과 분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동기는 다양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주로 가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저축의 동기가 은퇴를 위한 것(Modigliani, 1986)이고,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유산을 남기기 위한 것(Friedman, 1957 : Bryant, 1990)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세대간가설에서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저축행위(Barro, 1978 : Kurz, 198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정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나 긴급상황, 생애기간, 의료비지출

을 위한 저금(Hanna, Chang, Fan & Bae, 1993 : Kotlikoff, 1989)이 주요 동기로 간주되고 있다(Xiao & Noring, 1994).

한편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생활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계는 보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위험을 제3자(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장치 또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위험관리의 한 형태이다. 보험가입의 목적은 사망, 생존, 질병, 상해, 장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 보험의 경우는 순수보장형보다 저축성과 보장성의 성격이 결합된 상품이 많고 또 몇년 전부터는 연금과 결합된 형태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동기가 만일의 경우에 대한 보장보다는 노후대비나 자녀교육 자금 마련인 경우가 많아(김성민 외, 1999), 생명보험을 저축의 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경자, 2003).

가계의 저축수단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비금융권의 계(契)는 삼한시대(三韓時代)에까지 소급되는 공동행사의 하나로 상호부조라는 주된 목적 아래 취미 또는 생활양식의 공통분야에서 성립되었던 행사였다. 계(契)는 그 역사가 오래되고 다양한 발전과 변화를 거쳐 가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저축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비참한 역경 속에서 농촌경제의 곤란을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상호부조의 계가 발달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2004). 오늘날까지 가계경제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계는 하나의 투자안으로서 목돈 마련 이외에 친목과 사교의 기능 등 부수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의 이러한 저축, 저축성 보험, 계의 가입 동기는 다시 말하면 그 가계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이다. 각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는 다양한 문제와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반되는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계의 저축, 저축

성보험, 계 투자는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를 중심으로 월별 저축 및 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가계의 저축 및 투자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개별가계의 특성에 따른 저축규모의 차이 및 특성을 파악하여, 가계재무관리에 유용한 재무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생애주기설

가계의 저축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Modigliani & Brumberg(1954)와 Ando & Modigliani(1963)의 선두적인 논문을 중심으로한 생애주기 가설은 총체적인 소비 및 저축행위의 주된 이론이 되어왔다. 생애주기설은 연령단계에 따라 소득 및 소비관계, 혹은 저축과 부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단계에 따라 소득과 지출의 크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 생산성 등에 따라 저축의 시기와 부의 저축의 시기가 존재하게 된다(Danziger, Gaag, Smolensky & Taussing, 1982-1983). 전통적인 생애주기설은 소비자가 미래의 소득 유형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소비, 저축, 그리고 자산 축적의 수준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완벽한 확실성의 가정 하에서 가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선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출시기가 언제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급한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질 이자율의 변동이나 소비자의 성향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애주기설의 범위를 넘는 생애주기설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설은 적절한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반드시 부채차용을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지출의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Fan, Chang & Hanna, 1992 : Bae, Hanna

& Lindamood, 1993).

한편 생애주기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연령이 있으며 만일 유산에 대한 동기가 없다면 그 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신들의 모든 자산을 다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산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되거나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결론적으로 유산에 대한 동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에 부의 저축이 일어나지 않는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Mirrlees, 1980 : Juster, 1982 : Mullis & Metzner, 1986에서 재인용). 세대간 이전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실증연구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생애주기설에 도전하면서, 상속 및 유산상속의 경제적 의미와 가족구성원간의 소득 불평등성 및 자산분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결국은 유산의 동기를 지지하지 못하였으며, 대조적으로 노년기 사람들은 은퇴 후 자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rd, 1987 : 홍공숙·김순미·김연정, 1995).

생애주기 가설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문제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형태가 실제로 그의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Ando & Modigliani(1963)는 생애주기 가설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연령에 따른 한계저축성향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Kelly & Williamson(1968)은 저축에 관한 생애주기 가설의 적용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계층별로는 한계저축율이 크게 변동함을 나타내 가설을 뒷받침해주었다(김광석, 1975). 또한 King & Dicks-Mireaux(1982)는 생애주기를 통한 자산보유행동의 분석에서 항상소득의 차이를 통제했을 때 은퇴 후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 2. 가계의 위험관리

위험은 어떤 손실(loss)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이나 위험관리에서 사용하는 위험(risk)은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위험은 '미래의 손해가 손해빈도, 손해강도, 손해발생 시기 및 손해규모의 변동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정순희, 2003). 이러한 위험을 분류하자면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위험,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근원적 위험과 특정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순수위험은 이익의 발생가능성은 없고 손실의 발생가능성만 존재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며, 투기적 위험은 손실과 이익의 발생가능성을 함께 가진 위험으로 인위위험이라고도 말한다(안승철 외, 2000).

보험은 대표적인 위험이전 또는 위험감소 방식에 속한다. 가계는 작지만 확실한 비용(보험료)을 지불하고 불확실하지만 유사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보상(보험금)받기로 하고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이 방법은 개인주의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유용성이 크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지만 모든 위험이 보험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순수위험이 아닌 투기적 위험과 같은 경우 위험이전이나 위험감소의 방식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김경자, 2003).

보험의 가장 보편적 형태인 생명보험에 관한 생명보험협회의 2003년 전국적 조사실태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 조사가구의 89.9%이며, 이들 가입가구는 평균 3.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간 보험료 지출액은 평균 392만원이었으며, 이는 2000년 조사 결과에 비해 무려 32.4%나 증가한 납입액이었다. 이들 연간보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1.7%로 나타났다(생명보험협회, 2003). 이들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가 인지하는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요구하는 보험의 상품도 그에 따라 다양해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의 투기적 위험은 투자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변경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 가능하다. 단 이때의 적절한 구성이란 각 가계가

추구하는 위험허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Ang & Schwarz(1985)는 가계의 위험회피행동과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위험회피적인 투자자는 정보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정보보다는 과거의 가격이나 현재의 부의 수준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위험추구적 투자자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가져왔다. 이는 위험추구적 투자자일수록 변화지향적인 투자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들은 수익성과 위험에 기초하여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자금 가치의 안정성과 원금회수의 확실성은 안전자산의 기본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원금상환과 일정한 이자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국공채나 은행저축은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금상환이 없고 배당지급도 기업의 이윤여부에 좌우되는 주식이나 회사채권, 그리고 비금융권의 사채와 계 등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조순, 1986 : Bernstein, 1983 : 정은주, 1992). 각 가계는 수익과 위험을 상호비교 검토한 후에 투자안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가계가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기대수익에 차이가 없다면 위험성이 적은 자산을 선택하고, 위험성에 차이가 없다면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다(Hughes, 1993). 투자상의 위험이란 당연히 하나의 큰 심리적 부담이며, 위험추구자는 위험부담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부담하여 장래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Morris(1989 : 정은주, 1992에서 재인용)는 가계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안은 선택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비용은 위험감소에 따른 기대수익의 감소이다.

한국가계의 중요한 저축 수단 중의 하나였으며, 아직까지 적지 않은 비율로 선택되고 있는 계는 사채와 함께 대표적인 비금융권의 불안전자산 유형이다. 국권피탈 후 일제는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침략과 구시대 협동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이들 계를 모두 해산시켰다. 그러나 8·15광복 후 금융기관의 검색

과 인플레이션의 누진으로 투기적인 영리목적에서 계가 재빨리 부흥하였다. 특히, 6·25전쟁 후에는 도시중심으로 성행하여 서민금융을 지배하였으나, 유휴자본의 회전축진 및 대부이자의 고율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 조직 운영의 무질서로 가정문제에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 2004).

안전자산과 불안정자산에 관한 전국적 가계대상의 선행연구에서 계는 전체 표본의 약 13%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었으며, 이들의 계불입 총액은 평균 2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선, 1996).

### 3.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축 및 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였으나, 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포함할 수 있는 불안정 자산과 위험성향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생애주기시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저축 특성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1 : 양정선, 1992), 연령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된다(Radcliffe, 1990). Blume 등(1978 : 정은주, 1992에서 재인용)은 개별투자자들의 위험부담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추구적인 투자 성향을 보임을 지적하였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저축의 동기는 다르게 인식되며(Xiao & Noring, 1994),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보수적이고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적인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ajtsmit & VanDerhei, 1997 : Bajtsmit, Bernasek & Jianakoplos, 1996 : Hinz, McCarthy & Turner, 1997 : Yuh & Hanna, 1997 : Embrey & Fox, 1997에서 재인용).

가구주 교육수준과 소득은 저축 및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Xiao, 1995 : Chang, 1994 : Davis & Schumm, 1987 : 양세정 · 이영호, 1996 : 양정선,

1997)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인데, Galeson(1990)은 가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재정변수로 소득계층을 제시하였고, Hefferan(1982)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과 저축수준은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Donnelly, 1985) 이는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Cohen, Lewell, Leuse & Schlumbauma(1975 : 양정선, 1996에서 재인용)는 개별투자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포트폴리오 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을 밝혔다.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보험료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자, 2003).

가구주의 직업은 유동자산 증가분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순자산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Hefferan, 1982). 또한 위험자산 투자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Cohen, Lewell, Leuse & Schlumbauma, 1975 : 양정선, 1996에서 재인용).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한 양세정(1999)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가계 소득은 전업주부 가계에 비해 많았으며, 총소비지출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다소 높았고, 월후자액은 608,104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315,882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취업에 의한 맞벌이 여부는 그 가계의 저축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Hira(1989)는 가계의 총자산 보유액의 차이를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변수의 하나로 주택의 소유형태를 지적하였다. 주택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임차가구에 비해 자가소유 가계가 저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Hefferan, 1982), 양세정과 이영호(1996)의 연구에서는 월저축액과 평균저축률의 경우 임차가구가 자가소유 가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거주 가계는 타지역 가계에 비해 월저축액이나 저축보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세정 · 이영호, 1996).

가계저축의 유형과 결정요인을 조사한 많은 연구

들은 연령과 저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 가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생애주기가설에 위배되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한 기간원인은 주로 두가지로 설명하였다. 그 하나는 노년층의 가계가 높은 비율의 소득을 자녀교육에 지출한다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노년층 가계는 은퇴 후의 소득 수요를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김광석, 1975). 가구 특성에 따라 저축행태를 연구한 양은진(1998)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저축성향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지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유경아·임정빈, 2002).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축 및 투자에서 자녀가 미치는 영향력이 교육비 지출로 인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험료 지출을 분석한 김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저축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Xiao & Noring, 1994). 이외에도 핵가족 또는 확대가족 여부를 보여주는 가족형태가 저축 및 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계특성에 따른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1년 도시 가계조사로서, 이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표본가계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서 가계부기장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구주가 자영업, 경영, 자유업에 종사하는 경우 저축 및 보험, 계의 항목과 구체적인 소득 및 지출의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근로자가계로 국한하였다. 월평균 조사대상 5,141가계 중 비근로자 가계와 1년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 기재된 가계를 제외한 1,801근로자 가계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가계가 저축 및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권내 상품으로는 각종 금융기관의 예금 및 적금, 주식 및 채권으로 구성된 유가증권, 그리고 보험을 들 수 있고 비금융권의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계와 사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계가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축, 보험, 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flow의 개념으로서 가계수지 상에 나타나는 저축 및 투자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항목의 월평균 투자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월평균 저축은 가치분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외한 유량으로서의 저축을 의미하며, 기존 자산의 형태가 변화된 것에서 기인한 자산 유입분(저축 찾은 금액, 보험금, 계단 금액,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은 제외시켰다. 가치분소득이라 함은 가계의 실수입에서 비소비지출(각종 세금, 연금 및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며, 여기서 다시 가계의 소비지출(즉 가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서 각종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등의 10대 비목의 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저축으로 계산하였고, 그러한 저축 부분중 저축성보험료와 계의 부분은 제외시켜 저축의 범위

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월평균 저축성보험료는 교육보험, 생명보험 등 저축성보험 투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이 실제적인 자산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보험투자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월평균 계불입액은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 투자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서 친목계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계 불입액은 제외시켰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취업유무, 가족형태, 자녀수,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을 사용하였다. 가구주 직업은 통계청의 근로자 가구분류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의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4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이중 공무원의 사무직을 준거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경우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는 관공서 및 국공립 기관에 소속되는 경우는 공무원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공무원의 사무직으로 분류되었으며, 판매 및 서비스직에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경우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에 해당되며,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매일 계약에 의한 경우 임시 및 일용노무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배우자취업유무는 맞벌이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로서 비취업가계를 준거집단으로 하였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을 준거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이밖에도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를 가변수화 하였다. 자녀수와 월평균소득은 연속변수로 사용되어졌는데, 이중 월평균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월평균 합계이다.

저축, 저축성보험, 계의 월평균 투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평균값 및 4분위별로 살펴 보았으며, 소득 10분위에 따른 저축 및 투자분포를 분석하였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저축, 투자를 단순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를 비롯하여 보험, 저축을 소유하지 않는 가계가 상당수 존재하여 전체 표본의 일정 비율이 0값을 가지므로 최우도추정을 적용하

는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본의 약 85%가 남성가구주 가계였으며, 30-40대가 71.52%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3.42%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직업의 경우 기능공 및 상용노무직(49.97%), 공무원의 사무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 변수		빈도 (N=1,801)	백분율
성별	여성	273	15.16
	남성	1,528	84.84
가구주 연령	20대	118	6.55
	30대	639	35.48
	40대	649	36.04
	50대	304	16.88
	60대이상	91	5.05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385	21.38
	고졸	782	43.42
	전문대졸	149	8.7
	대졸	405	22.49
가구주 직업	대학원이상	80	4.44
	공무원	195	10.83
	공무원외사무직	523	29.04
	기능공및상용노무직	900	49.97
배우자 취업유무	임시및일용노무직	183	10.16
	취업 비취업	567 1,234	31.48 68.52
가족형태	확대가족	177	9.83
	핵가족	1,624	90.17
거주지역	서울	297	16.49
	서울이외 지역	1,504	83.51
주택소유 형태	무주택	612	33.98
	주택소유	1,189	66.02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수(명)		1.65	0.86
월평균소득(원)		2,682,539	1,895,046

(29.04%), 공무원(10.83%), 임시 및 일용노무직(1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약 31%가 맞벌이 가계였으며, 90% 이상이 핵가족의 가족유형을 보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는 전체의 16.49%였으며,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약 66%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녀수는 평균 1.65명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약 268만원이었다.

## 2.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 실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표본 중 76.18%에 해당하는 1,372가계가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561,464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성 보험에 투자하는 가계는 1,379가계로서 전체 가계중 약 77%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투자액은 165,836원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자산인 계의 경우 전체 표본의 약 12%에 해당하는 212가계만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29,144원으로 나타났다.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를 하고 있는 가계의 일반적인 투자분포는 〈표 3〉과 같다. 저축을 하고 있는 1,372가계의 평균은 약 102만원이었고, 저축성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379가계는 월평균 2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계에 투자하고 있는 212가계의 월평균 불입액은 2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계에 투자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 표본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이들 투자가계만을 살펴볼 경우 계의 월평균 불입액은 저축성보험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경우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계는 월평균 36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었으며,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계는 월평균 133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3.7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계의 월평균 보험료가 28만원 정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계의 9만원정도의 월평균 보험료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의 경우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계가 월평균 5만원을 불입하는 것에 반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계는 35만원 정도를 불입하여 투자규모에 있어서 약 6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 3. 가계특성에 따른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

소득계층별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를 분석하기 위한 가계의 10분위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월평균 가계소득의 차순에 의해 1분위 집단은 소득이 가장 낮고 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소득 10분위별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액은 각 소득 분위에 속한 가계의 투자액을 평균한 값이다. 또한 이들 각 분위별 저축 및 투자액의 총합이 전체 각 항목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누적비율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2〉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의 투자실태

금융자산	보유가계수	전체가계중 비율	월평균투자액(원)	표준편차
저축	1,372	76.18%	561,464	1,786,453
저축성보험	1,379	76.57%	165,836	199,887
계	212	11.77%	29,144	131,660

〈표 3〉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가계의 실태

(단위 : 원)

금융자산	25th Percentile	Median	75th Percentile	Mean	S.D.
월평균 저축	355,393	744,440	1,330,910	1,022,302	1,381,144
월평균 저축성보험료	91,940	160,368	277,470	216,575	202,955
월평균 계불입액	50,000	103,000	347,000	247,236	305,228



<표 4> 소득계층별 저축, 저축성보험, 계의 월평균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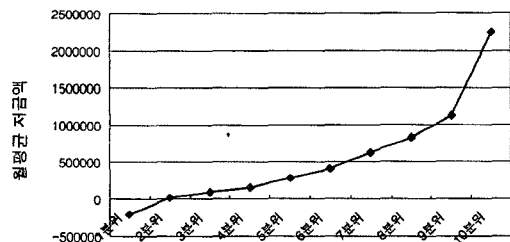
(단위 : 원, %)

소득 10분위	저 축	계층별 저축의 총저축에 대한 비율	저축성보험	계층별 보험의 총보험에 대한 비율	계	계층별 계의 총계에 대한 비율
1분위	-207,568	-3.69(-3.69) <sup>a</sup>	56,622	3.40( 3.40) <sup>b</sup>	8,833	3.02( 3.02) <sup>c</sup>
2분위	14,737	0.26(-3.43)	91,866	5.55( 8.95)	9,388	3.23( 6.25)
3분위	97,351	1.73(-1.70)	115,987	7.00(15.95)	15,683	5.38(11.63)
4분위	162,780	2.85( 1.15)	133,552	7.91(23.86)	15,657	5.28(16.91)
5분위	288,873	5.23( 6.38)	166,202	10.20(34.06)	29,651	10.35(27.26)
6분위	413,566	7.36(13.74)	183,681	11.07(45.13)	32,117	11.02(38.28)
7분위	625,376	11.14(24.88)	200,582	12.10(57.23)	30,965	10.63(48.91)
8분위	830,771	14.80(39.68)	218,348	13.17(70.40)	44,626	15.31(64.22)
9분위	1,128,840	20.12(59.80)	237,810	14.34(84.74)	43,143	14.81(79.03)
10분위	2,255,453	40.20(100)	252,914	15.26(100)	61,094	20.9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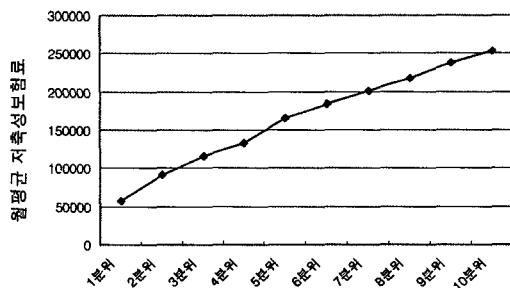
- a : 계층별 저축액의 총저축액에 대한 비율의 누적
- b : 계층별 보험액의 총보험액에 대한 비율의 누적
- c : 계층별 계불입액의 총계불입액에 대한 비율의 누적

소득계층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는 월평균 207,568원씩의 부의 저축(dissaving)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층별 저축의 총저축에 대한 비율의 누적이 소득계층 4분위에서야 비로서 양의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의 증가와 가계 대출의 급증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계층별 저축의 총 저축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10분위의 경우 이들 계층의 저축이 총 저축액의 40.20%를 차지하여 심각한 불균등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들 분포는 <그림 1>에서도 볼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1분위에서 월평균 56,622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분위에서는 월평균 252,914원을 납입함으로써 4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별 보험액의 총보험액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 20%에서 그 비율이 8.95%인 반면 상위 20%에서는 29.6%로 나타나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저축이나 계에 비해 1분위와 10분위간의 월평균 투자액 격차가 가장 적은 종목이었다. 또한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아질 수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큰



<그림 1> 소득계층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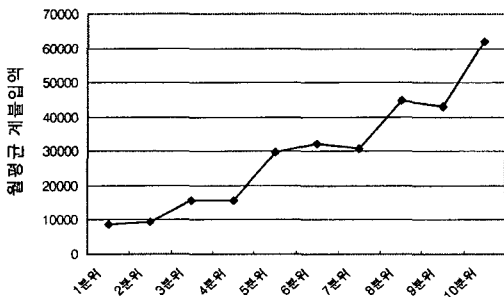


<그림 2> 소득계층에 따른 월평균 저축성보험료

변화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계는 가입 가계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체 가계

를 대상으로 평균을 낸 경우, 즉 전체가계의 소득계층별로는 가장 적은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다. 10분위의 가구는 월평균 61,094원을 계에 불입하고 있었으며, 이들 계층의 월평균 계불입액이 표본의 총 월평균 계불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로 나타났다. 1분위와 10분위의 월평균 계불입액은 약 7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계불입액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3>을 살펴보면 1, 2, 3, 4분위, 5, 6, 7분위, 8, 9분위, 그리고 10분위로 크게 성격이 나누어졌다. 즉 4분위에서 5분위로, 7분위에서 8분위로, 그리고 9분위에서 10분위로 계단식



<그림 3> 소득계층에 따른 월평균 계불입액

의 가파른 증가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는 <표 5>에 분석되어 있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30대, 40대, 50대, 2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투자액수가 높게 나타나 가정을 형성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필요성이 연령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월평균 계불입액의 경우 50대, 40대, 30대, 6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상으로는 50대, 40와 30대, 60대 이상과 20대의 3집단으로 투자성격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20대의 계불입액이 가장 낮았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계불입액은 증가하지만 60대 이상의 집단에서도 불입액이 적어 20대와 같은 집단으로 묶였다. 이러한 결과에서와 같이 저축성보험 및 계의 투자액은 연령에 따라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저축 및 금융자산의 투자를 살펴보면, 저축과 계의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액도 증가하였으며, 각 교육수준별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구주 교육수준이 금융자산 보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양정선, 1997 : 양세정·이영호, 1996 :

<표 5> 가구주 특성별 저축, 저축성보험, 계 월평균투자

(단위 : 원)

가구주특성		저축			저축성보험			계		
		Mean	F값	D	Mean	F값	D	Mean	F값	D
연령	20대	453,374	2.12	B	116,689	97.41***	D	13,987	24,14***	C
	30대	568,619		A	188,759		A	26,768		B
	40대	582,064		A	170,192		B	27,823		B
	50대	567,721		A	151,103		C	46,609		A
	60대이상	482,709		AB	86,106		E	16,499		C
교육수준	중졸이하	425,791	30.54***	D	109,838	131.22***	D	21,886	6.45***	C
	고졸	500,561		D	174,305		BC	29,291		BC
	전문대졸	606,009		C	179,847		B	30,102		B
	대졸	713,143		B	197,810		A	33,190		AB
	대학원이상	960,598		A	164,806		C	40,423		A
직업	공무원	876,198	57.65***	A	205,903	131.66***	A	52,567	29,14***	A
	공무원외사무직	694,559		B	186,154		B	27,866		B
	기능공및상용노무직	455,956		C	157,992		C	26,374		B
	임시및일용노무직	364,710		D	103,575		D	23,593		B

\*p < .05 \*\*p < .01 \*\*\* p < .001

Xiao, 1995 : Hefferan, 1982)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저금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고, 월평균 투자액은 대졸, 전문대졸, 고졸, 대학원이상, 중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졸 가구주의 투자액이 가장 열악하였는데 이는 가구주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대학원이상 가구주의 투자액이 낮은 것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저축성보험이 재해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닐 뿐 아니라 다른 투자대안과 비교하여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평균 투자액이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주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있어서 공무원, 공무원의 사무직, 기능공 및 상용노무직, 임시 및 일용노무직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축과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들 근

로자 직업의 4집단이 모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고, 계불입액은 크게 두 직업군으로 묶여 공무원 집단과 다른 3집단으로 나뉘어졌는데, 공무원집단은 다른 근로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자액을 불입하여 소득의 규칙성과 생활의 안정성 면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 4.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월평균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취업유무, 가족형태, 자녀수, 거주지역,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은 준거집단인 40대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월평

<표 6> 가계의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에 대한 Tobit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저축	저축성보험	계
			Estimate(S.E.)	Estimate(S.E.)	Estimate(S.E.)
성별(여성)			0.004(0.014)	-0.088(0.019)***	0.281(0.066)***
가구주 연령 (40대)	20대		-0.139(0.022)***	0.092(0.029)**	-0.008(0.120)
	30대		-0.072(0.012)***	-0.106(0.015)***	-0.079(0.057)
	50대		-0.047(0.014)**	-0.018(0.019)	-0.210(0.059)***
	60대이상		-0.050(0.023)*	-0.039(0.038)	0.148(0.114)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중졸이하		-0.057(0.014)***	0.165(0.020)***	0.187(0.059)**
	전문대졸		-0.002(0.018)	0.044(0.023)	-0.294(0.081)***
	대졸		0.018(0.014)	0.040(0.018)*	-0.570(0.066)***
	대학원이상		0.196(0.024)***	0.211(0.033)***	-0.967(0.148)***
가구주 직업 (공무원외 사무직)	공무원		-0.002(0.016)	-0.014(0.021)	-0.223(0.073)**
	기능공및상용노무직		0.004(0.013)	0.012(0.017)	-0.250(0.060)***
	임시및일용노무직		0.015(0.020)	0.072(0.028)**	-0.385(0.092)***
배우자취업유무(비취업)			0.004(0.010)	-0.070(0.014)***	0.030(0.046)
가족형태(핵가족)			0.088(0.016)***	-0.153(0.021)***	0.534(0.062)***
자녀수			-0.047(0.006)***	0.030(0.008)***	-0.102(0.031)***
거주지역(서울 이외지역)			0.047(0.013)***	0.033(0.017)*	-0.842(0.053)***
주택소유형태(무주택)			0.017(0.011)	-0.085(0.014)***	0.036(0.054)
월평균소득			4.1E-7(4.3E-9)***	9.9E-8(4.7E-9)***	8.5E-8(1.4E-8)***
상수			12.604(0.069)***	11.762(0.091)***	14.603(0.350)***
Log Likelihood			-18111.80	-21016.74	-3950.029

\*p < .05 \*\*p < .01 \*\*\* p < .001

균 저축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40대에서 가장 저축의 여력이 우수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고졸에 비해서 월평균 저축액이 유의미하게 적었고, 대학원이상인 경우 유의미하게 많게 나타나 인적자본의 증가에 따른 소득 및 저축의 증가를 알 수 있었다.

핵가족에 비해 확대가족인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유의미하게 많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저축액은 감소하여 양육비 증가에 따른 저축의 감소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중인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수가 가정경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양세호·이영호(1996)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의 월평균 저축액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가계의 실수입을 나타내는 월평균 소득은 월평균 저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여성 가구주인 경우 남성 가구주 가계에 비해 더 높은 보험투자액을 보였다. 준거집단인 40대보다 20대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월평균 투자액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30대는 40대보다 투자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은 연령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같은 맥락을 보이지 않고 보험의 필요에 의해 생애주기 초반기에 가장 큰 필요성을 띄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 고졸집단에 비해 저축성보험료가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대졸과 대학원이상의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월평균 저축의 경우 중졸이하의 집단에서는 고졸집단에 비해 저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저축성보험에 대한 투자는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 가구주에게서 선호되는 투자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보험료 지출액이 증가하였다는 김경자(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가 임시 및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외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주보다 월평균 저축성보험료의 납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맞벌이인 경우, 그리고 확대가족인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저축성보험료의 납입이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저축성보험의 납입액은 증가하여 저축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김경자(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계,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은 저축성보험의 납입액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계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계의 불입액이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50대인 경우 40대 가구주 가계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계투자는 부적 관계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계불입액의 금액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가구주 직업의 경우 공무원외 사무직 종사자의 집단보다 공무원, 기능공 및 상용 노무직, 임시 및 일용노무직 종사자의 집단의 계투자가 적게 나타났다.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지방거주 가계인 경우 계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계의 투자 특성상 전통적인 가족유형 및 지방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수는 월평균 계불입액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는데, 자녀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출증가가 계투자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월평균 소득액은 계불입액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저축과 저축성보험, 그리고 계는 선호되는 가계의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저축의 여력은 40대에 가장 우수했지만 저축성보험은 20대 가구주에게서 적극적으로 선호되었고, 저학력의 가구주일수록 저축성보험과 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확대가족인 경우 저축의 여력은 많았으나 저축성보험은 선호하지 않았고, 계의 투자금액은 높았다. 이밖에도 자녀수가 많고 무주택자일수록 저축성보험의 투자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미래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축이 더 필요한 가계에서 저축성보험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투자 항목간의 보완성과 대체성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저축, 저축성보험, 계의 상관관계

금융자산 항목	저축	저축성보험	계
저축	1.000	0.085***	0.048***
저축성보험	0.085***	1.000	0.034***
계	0.048***	0.034***	1.000

\*p &lt; .05 \*\*p &lt; .01 \*\*\* p &lt; .001

이들 투자 항목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저축, 저축성보험, 계가 서로 부적인 대체관계에 있기보다는 정적인 보완관계에 있는 투자항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항목간에는 저축과 저축성보험의 관계가 저축과 계의 관계, 그리고 저축성보험과 계의 관계보다 더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투자자산 항목의 보완성에 있어서 저축과 저축성보험의 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V. 결론 및 제언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비하는 가계저축 및 투자행동은 미래의 효용 창출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긴축하는 시간적 차원에서 적절한 자원분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저축 및 투자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개별가계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무관리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체 표본 중 약 76%의 가계가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약 77%의 가계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약 12%의 가계가 비금융권의 계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 보험, 계가 각각 약 62%, 48%, 13%를 차지하였다는 양정선(1996)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제도금융권의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성장하였지만 비금융권의 계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는 각

가계의 특성과 생활주기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맞춤형 투자안이 제도금융권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고 선택된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금융권이 축소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가계특성에 따른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라서 가장 큰 불평등을 보여준 것은 월평균 저축액이었으며, 저축성보험의 증가율은 3가지 항목중 가장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가구주가 근로자로서 생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층인 소득 1분위에서는 부의 저축이 나타나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과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각 집단을 단순비교한 결과 저축성보험액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계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선호되는 투자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셋째,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저축의 여력은 40대에 가장 높았고 저축성보험은 20대 가구주에게서 가장 적극적으로 선호되었고, 저학력의 가구주일수록 저축성보험과 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확대가족인 경우 저축의 여력은 많았으나 저축성보험은 선호하지 않았고, 계의 투자금액은 높았다. 이밖에도 자녀수가 많고 무주택자일수록 저축성보험의 투자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미래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축이 더 필요한 가계에서 저축성보험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는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그리고 지방거주 가계인 경우 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유형 및 지방에서 선호되는 투자안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축, 저축성보험, 계의 보완성과 대체성을 간단히 분석한 결과 이들 금융자산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보였었고, 특히 저축과 저축성보험은 가장 강한 보완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및 후속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계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생애주기설은 금융자산 투자가 계좌간 또는 금융자산 항목간 비용없이 교환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Xiao, 1995). 그러나 가계경제학을 연구하는 일부학자들은 자산의 항목 또는 세부적인 금융자산의 항목을 자세히 분류하고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가계의 일반적 특성 또는 저축의 동기를 결부지어 설명하였다(Weagley & Gannon, 1991 : Xiao & Olson, 1993 : Xiao & Anderson, 1993). 즉 생애주기설이 소비자의 생애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저축과 소비의 흐름을 보여 준다면, 가계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동기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 항목 구성이 달라지며, 그것은 여러 가지 가계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저축의 동기, 재정목표와 같은 주관적인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자 항목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조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저축, 저축성보험, 계 투자의 항목은 근로자 가계로 한정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위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전국적 규모에서의 다양한 가계의 특성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금융권의 대표적인 계 투자가 큰 변화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본 연구결과 알 수 있었다. 친목적 모임을 위한 계가 아니고 목돈마련을 위한 계가 아직도 이렇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도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불안전 자산에 대한 위험인식이 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계는 광복 이후 투기적인 목적에서 부흥하였으며, 대부이자의 고율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였고, 계 조직의 운영 무질서로 원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므로 계불입에 대한 올바른 계몽적 차원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비금융권의 저축 및 투자행동을 제도금융권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축, 저축성보험, 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졌으나 이들 투자 항목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관관계의 분석으로 그쳤다. 가계가 선택하는 다양한 금융자산 항목의 면밀한 분석은 가계가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대체성과 보완성을 밝혀주는 좋은 연구주제일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의 선택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좋은 연구방법을 갖춘 금융자산 항목간의 대체성과 보완성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김광석(1975). 한국가계의 저축행태. 한국개발원 연구총서, 4. 서울 : 한국개발원.
- 생명보험협회(2003). 2003 생명보험성향조사.
- 안승철 외(2000). 투자와 보험. 학지사.
- 양세정, 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 양세정(1999).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적 기여도 측정. 대한가정학회지, 37(3), 27-42.
-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지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선,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유경아, 임정빈(2002). 도시가계의 저축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87-102.
- 정순희(2003). 소비자재정설계. 신정.
- 정은주(1992). 위험태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2001 도시가계연보.
- 홍공숙, 김순미, 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45-55.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Ang, J. S. & Schwarz, T. (1985), Risk Aversion and Information : An Experimental Study of Price Variability in the Securities Markets, *J. of Finance*, 40(3), 825-846.
- Bae, M. K., Hanna, S., & Lindamood, S. (1993), Patterns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 Chang, Y. R. (1994), Saving Behavior of U.S. Households in the 1980s: Results from the 1983 and 1986 Survey of Consumer Fin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45-64.
- Danziger, S., Gaag, J. V. D., Smolensky, E. & Taussing, M. K. (1982-1983),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Consumption Behavior of the Elderly, *J. of Post Keynesian Economics*, 5(2), 208-227.
- Donnelly, A. S. (1985), The Three Rs of Investing : Return, Risk, and Relativity, Illinois : Dow Jones-Irwin.
- Embrey, L. L. & Fox, J. J.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33-39.
- Fan, X., Chang, Y & Hanna, S. (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25-133.
- Heffe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Hira, T. K. (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83-194.
- Hughes, C. E. (1993), Insurance Planning : The Risk Management Process, *Fundamentals of Financial Planning*, The American College, Bryn Mawr, Pennsylvania, 221-248.
- Hurd, M. D. (1987), Savings of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298-312.
- King, M. A. & Dicks-Mireaux, L. D. (1982), Asset Holdings and the Life-cycle, *The Economics Journal*, 92, 247-267.
- Mullis, R. J. & Metzen, E. J. (1986), Age and Wealth : A Cross/Within-Cohort Analysi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221-223.
- Olson, M. & Bailey, M. J. (1981), Positive Time Preference, *J. of Political Economy*, 89(1), 1-25.
- Radcliffe, R. C. (1990), *Investment : Concepts, Analysis, Strategy*, 3rd ed., Illinois : Scott Foresman.
- Weagley, R. O. & Gannon, C. F. (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Xiao, J. J. (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
- Xiao, J. J. & Noring, F. E. (1994), Perceived Saving Motives and Hierarchical Financial Ne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25-44.

(2004년 2월 26일 접수, 2004년 6월 15일 채택)